

협

회

소

식

본회, '96년도 정기총회 개최



본회(회장: 전동용)는 지난 2월 13일 양돈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제 17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 7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총회에서는 최근 양돈산업 동향 및 업무의 보고와 감사보고가 있었으며, 부의안건으로 정관개정(안), 회비부과 및 자조금 부과, 재산 조성의 건(제1검정소 SEW(조기격리이유)사업실시, '95회계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 건, '95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건, 감사 선임(안), 기타사항등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본회, 1,2검정소 최우수농장에 성현농장, 동림종돈 선정

본회 제1검정소(소장: 정숙근)와 제2검정소(소장: 김형균)에서 지난 '95년 한해동안 출품농장별로 성적을 집계한 결과 출품농장중 최우수농장의 경우 제1검정소는 성현농장(대표 김영석: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가입리 90번지)이, 제2검정소는 동림종돈(대표 이동열: 경남 마산시 합포구 진접면 임곡리 569-6번지)이 각각 선정되었으며, 제1검정소 우수농장에는 경기양돈(대표: 이윤원), 동림종돈(대표: 이동열)이, 제2검정소 우수농장에는 활천농장(대표: 이대호), 광암축산(대표: 이내홍)이 각각 선정되었다.

최우수농장으로 선정된 성현농장은 총 131두가 합격하여 75.7%의 합격을 보여 총193.7점을 얻었으며 동립종돈은 총 186두가 합격되어 67.4%의 합격률을 보여 총 222.8%를 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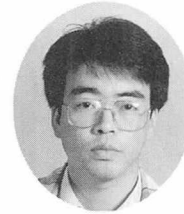
월간양돈 '96년 1차 편집위원회의 개최



안기홍 이사



이장형 연구관



이재춘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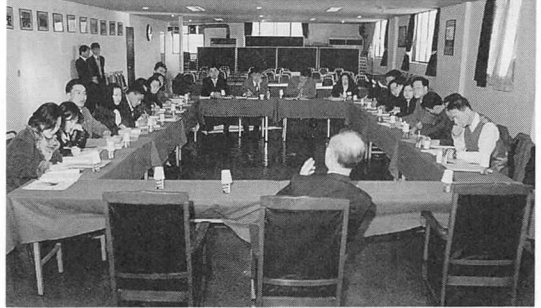
장민기 지부장

본회는 월간양돈지의 보다 알찬 편집을 위하여 월간양돈 편집위원회를 재구성하고 '96년 제1차 편집위원회의를 지난 2월 8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월간양돈 편집위원회는 각 전공별로 세분화된 편집위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신임 편집위원으로는 안기홍이사(도드람 양돈조합), 이장형연구관(축산기술연구소), 이재춘원장(한별피크클리닉), 장민기지부장(본회 부천지부)이다. 또한 본회는 연중 6회의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월간양돈」이 양돈기술과 정보제공, 협회의 제반 공지사항 등을 게재, 양돈산업 및 협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 편집회의에서는 양돈농가가 좀더 쉽게 접할 수 있는 현장감있는 내용과 양돈농가의 계도와 정부의 정책설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월간양돈의 편집방향을 논의했다.

선진사료·제일사료 신입사원 본회 방문



주식회사 선진사료(8명)와 제일사료(18명)의 신입사원들이 지난 1월 30일과 31일 양일간에 걸쳐 본회를 방문했다.

이들은 본회에 방문해서 본회 노영한전무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협회의 중요한 역할과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다.

괴산지부, 『수입개방을 대비한 최근 국제 곡물동향』에 대한 세미나 개최



본회 괴산지부(지부장: 우양규)는 지난 2월 7일 증평파크관광호텔에서 지역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수입개방을 대비한 최근 국제 곡물동향과 국제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본회 전동용회장, 낙농육우협회 김남용 회장, 양계협회 최준구회장, 축협중앙회 박순용 상무가 참석하였고 각각의 인사말을 통해 “축산인들이 뭉쳐서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전면 적용의 실현과 육류의 잔류문제, 사료값 인상문제 등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소, 돼지, 닭의 생산자 단체들이 한 힘으로 뭉쳐 WTO개방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야겠다”고 축산인들의 단결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미국사료곡물협회 민병렬 전무가 「최근 국제사료곡물가격 동향」에 대한 강의와 본회 노영한전무가 「양축농가의 숙원 정책 과제 해결을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한 강의를 있었다.

민병렬전무는 강의를 통해 '95·96사료곡물 수급의 특징은 모든 곡물이 당년생산보다 소비가 크며, 연말 재고가 최저치를 나타냈으며, 다른 사료곡물의 대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중요사료 곡물인 옥수수 가격은 선적가격(FOB)으로 155~170불, 도착가격으로 185~200불로 전망되고 앞으로의 가격변동요인으로는 남반구(알젠티, 브라질, 남아프리카, 호주)의 작황과 아시아지역 수입국의 동향, 미국의 재배면적과 기후, 밀 작황, 미국내 사료소비량 추이가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 방역대책추진위원회 개최

—종돈장 오제스키병 백신 사용 유보 건의키로



본회는 지난 2월 22일 오후 2시 본회 회의실에서

서 방역대책추진위원회의를 열고 돼지 질병 방역대책 등을 논의했다.

방역대책추진위원회(위원장 : 백우현)는 이날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정지역 종돈장의 종모돈에 대한 오제스키병 사독백신 접종 허용 방침과 관련된 문제점을 집중 논의했다.

위원회는 이 문제와 관련, 종돈장에 대해 사독백신 접종을 허용할 경우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오제스키병 박멸정책과 배치되고, 양돈농가가 백신을 접종한 종돈을 구입할 경우 진단에 혼란이 야기된다고 정부에 백신접종 허용을 유보해 줄것을 건의키로 했다.

위원회는 정부가 종돈장에 백신 접종을 허용해 줄 것이 아니라 감염돈에 대한 살처분과 보상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현재 정부가 돼지 질병 방역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시설과 인력, 장비가 열악하고, 양돈농가들이 정부 정책을 불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돼지 질병 방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민, 반관 형태의 별도 가축방역 전담기구 설치가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업계와 정부가 공동 출자하는 형태의 전담기구를 설치해 나가기로 했다.

본회, 함안지부 설립 승인

본회는 지난 2월 16일 경남소재 함안지부의 설립을 승인했다. 함안지부의 설립승인은 1월 24일 개최된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지부 설립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갖추에 따라 이번엔 설립을 승인하게 된 것이다.

이번 신규로 설립된 함안지부(경남 함안군 가야읍 산서리 684-15)는 함안군 전역을 대상으로 지부를 구성하게 되며 창립회원수는 총 23명으로 초대지부장은 김계웅씨가 선임되었다.

함안지부에는 최상백 중앙회 부회장(칠삼농장), 하오조 경남도협의회장 등이 지부회원으로 되어 있으며, 초대지부장 김계웅씨는 경남 함안국 칠원면 유원리(전화 87-0257)에서 500두 규모의 영진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화성·수원지부, 윤대열 지부장 선출



윤대열 지부장

화성·수원지부(지부장 : 윤대열)는 지난 1월 16일 정기월례회를 통해 신임지부장에 윤대열씨, 부지부장에 김용진, 김종필씨, 총무에 최경섭씨, 감사에 김영남, 안교완씨를 각각 선출 하였다.

신임 윤대열 지부장은 경기도 화성군 양감면 사창리에서 비육돈 농장을 경영하고 있다.

김해지부, 한영섭 지부장 선출



한영섭 지부장

본회, 김해지부는 지난 1월 25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지부장에 한영섭씨를 선출하였다.

또한 부지부장에 김영인씨, 감사에 송상부·이상대씨가 추대되어 취임하였다.

신임 한영섭 지부장은 부산경남양돈협동조합 이사과 김해가야 로타리 회장을 맡고 있으며,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에서 돼지 500두 규모의 국경농장을 경영하고 있다.

아산지부, 김명식 지부장 선출



김명식 지부장

본회 아산지부는 지난 2월 1일 신임 지부장에 김명식씨를 선출하였다.

신임 김명식 지부장은 천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난 81년 양돈업을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대전·충남 양돈조합과 화남산업(주)의 이사로 활동 중이다.

또한 신임 김명식 지부장은 충남 아산시 음봉면 월당리에서 돼지 295두 규모의 세실농장을 경영하고 있다.

논산지부, 홍성남 지부장 선출



홍성남 지부장

본회, 논산지부(지부장 : 홍성남)는 지난 1월 16일 총회를 갖고 신임 지부장에 홍성남씨를 선출하였다.

신임 홍성남 지부장은 충남 논산군 연무읍 안심1동 14번지에서 모돈 120두 규모의 평남농장을 경영하고 있다.

서산·태안지부, 사무실 이전

서산·태안지부(지부장 : 이종구)는 지난 2월 5일부로 사무실을 이전 하였다.

- 주소 : 충남 서산시 읍내동 466번지
- 전화 : (0455) 64-0909